

일본의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의미

- 학생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

The Meanings of School Libraries in Japanese Reading Education: from the Viewpoints of Students

윤 유 라(You-Ra Youn)*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학생들의 독서행태와 학교도서관의 활용 |
| 1. 연구배경과 목적 | 1. 독서행태에 나타난 보편적 특징 |
| 2. 연구대상과 방법 | 2.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활용 |
| II. 독서교육의 목표와 학교도서관 정책 | IV.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도서관의 과제 |
| 1. 독서교육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 | 1. 학교도서관 정책의 전면적 보완 |
| 2.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정책 | 2. 현행 독서교육의 방법과 내용적 혁신 |
| | V. 결 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독서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본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접근하면서, 학교도서관을 명실상부한 독서교육의 주체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키워드: 일본의 독서교육, 일본의 독서정책, 일본의 학교도서관, 일본의 학교도서관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school libraries in Japanese reading education. An emphasis was on analyzing both strength and weakness of Japanese school library policies and reading education programs from the viewpoints of Japanese students. Employed to collect the data were a comprehensive literature survey, focus interviews with 23 school librarians, and a survey with 404 Japanese student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Japanese school library policy is not adequate enough to make its reading education be successful, and in particular, it has serious flaws with the educational system of school librarians as well as the school library staffing system itself.

Keywords: School Library Policy in Japan, Reading Education Policy in Japan,
School Library in Japan, School Librarian in Japan, Teacher Librarian in Japan

* 츠쿠바대학 도서관정보미디어연구과 박사과정수료(win8138@naver.com)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0년 2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0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10년 3월 26일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독서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독서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학생들에게 인격 형성과 교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핵심 인프라이며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혹은 사서)가 독서교육의 핵심 주체라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일반인들조차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인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정책과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도서관정책과 교육정책의 담당자들은 국가의 百年大計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엘리트 관료인데, 도서관선진국에서는 일반인들조차 깨닫고 있는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밀연적 관계를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연구진은 한동안 그 원인을 한국의 관료 집단이 받아들인 한국식 초중등 교육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환경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다가 근자에 들어 문득, 근대식 개념의 圖書館과 독서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다. 혹시 한국의 도서관정책과 독서교육정책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진하게 남아있는 일제에 의한 정책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의 관료에게 있어 일본의 도서관정책과 교육정책은 여전히 모방을 위한 원전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일본의 도서관정책과 독서교육정책이 궁금해졌다. 특히, 독서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는지 궁금해졌다.

이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우리는 일본에서는 독서교육과 관련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일본이 시행해 온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검토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실태를 시설과 운영 인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는 특히,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이며 학교도서관이 실시하는 독서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독서행태와 반응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렇듯 일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한국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정책의 길라잡이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일본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의 현황과 역사적 흐름 및 맥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관련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분석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사료적 성격의 정책 문서에 더해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저서 및 논문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문헌과 관련된 보다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일본의 초·중·고 학교도서관 중에서 지역이나 규모 등에서 대표성을 띤 11곳을 선정하여 1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도서관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사서교사 혹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담당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학교도서관협회¹⁾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연구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무자들의 생각을 읽어내었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생들의 독서행태와 독서교육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는데, 그들은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정책을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경험해온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실태를 피교육자의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²⁾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한 8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들을 표본 집단으로

1) 일본의 전국학교도서관협회는 일본 전역에 걸쳐 61개 산하단체를 가진 최대의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이다. “학교도서관은 민주적인 사고와 자주적인 의사, 고도의 문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 1950년 2월에 창립된 전국학교도서관협회를 모태로 하며, 1998년 9월에 사단법인전국학교도서관협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2010년 현재, 학교도서관 관련 문헌의 출판과 연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독서현황을 조사하여 생산하고 있다.

2)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서정책의 원년은 2002년이며, 학교도서관 정책의 원년은 2003년이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독서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이 시행된 시점부터 각 종별 학교교육을 모두 거친 집단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기능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들에 의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다분히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학교도서관과 담당자의 존재와 독서교육에 있어서 그들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학교도서관의 이용행태와 독서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월에 8개 학교 중에서 다시 5개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수업시간과 학교도서관에 협력적인 교사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40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답안이 부실한 5명을 제외하고 399명이 완성한 설문지를 통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II. 독서교육³⁾의 목표와 학교도서관 정책

본격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해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자 한 것은 일본의 독서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그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해 온 정책의 성향과 특징이었다. 더불어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마련해 놓은 제도와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다.

1. 독서교육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

가. 독서교육의 목표

독서교육과 관련한 일본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독서교육의 목표를 ‘인간성 형성’에 두면서 ‘교양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호리카와(堀川照代)는 일본의 독서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는데, 독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독해력, 독서기술, 독서력, 독서태도, 그리고 인간형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⁴⁾

다음의 <표 1>은 호리카와가 제시한 5대 영역에 따라 독서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일본 학자들과 유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점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일본의 대표적 독서교육 연구자인 나메카와(滑川道夫)⁵⁾와 사카모토(坂本一郎)⁶⁾는 호리카와와는 다소 다른 관점

3)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독서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920년도의 나가타(中田邦造)이다. 이시가와현의 도서관장이었던 나가타는 농촌청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학급을 조직하여 독서보급운동을 권장했으며,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던 독서지도를 독서교육이라고 칭하였다. 이후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혼용되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일반적인 경향은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독서지도를 부르는 경향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부터 지도까지를 포함한 의미로써 독서교육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黒澤 浩 外, 新・こどもの本と讀書の事典(東京: ポプラ社, 2004), pp.187-188.

4) 日本図書館情報學會研究委員會編, 學校図書館メディアセンター論の構築に向けて(東京: 勉誠出版, 2005), pp.115-134.

5) 나메카와는 독서교육(실제로는 독서지도로 쓰고 있다)의 내용을 ① 독서력의 배양 ② 독서기술방법의 습득 ③ 독서의욕·흥미·관심의 개발 ④ 독서영역의 확충 ⑤ 독서습관의 육성 ⑥ 독서환경의 정비 ⑦ 독서운동의 촉진 등으로 7개로 정리하였다. 나메카와는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에서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서교육의 최종 목표를 ‘인간성 육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추천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는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도 독서교육의 목표를 ‘인간성의 형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표 1〉 독서교육의 목표와 내용

독서에 따른 지도	독서지도의 목표	(5) 인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카모토이치로(坂本一郎) 1. 어린이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해서 지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야 2. 어린이에게 감동을 제공함으로써 숭고한 가치에 대해 인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야 3. 어린이에게 위안(혹은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불안한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며, 새로운 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시마 히사오(森島久雄) 1. 사회성 형성: 원만한 상식·문제해결의 의욕·독자성·판단력 2. 문화성 확대: 지적호기심·지식·오락 3. 인간성 도야: 사고력·인식력·상상력·감성·의지
독서에 관한 지도	독서를 촉진시키는 힘	(3) 독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메카와 미치오(滑川道夫) 1. 질적 힘(미독적 이해·감상적 독해) 2. 양적 힘(두꺼운 책을 읽어내는 힘) 3. 정독력(정확하게 읽어내는 힘) 4. 유지력(좋은 책을 읽어내는 힘) 5. 감상력(읽고 느끼는 힘) 6. 판단력(생각하고 판단하여 읽는 힘) 	(4) 독서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1. 독서취미·독서습관의 형성 2. 독서의 즐거움을 알기 3. 독서의욕의 환기 4. 독서영역의 확대와 심화 5. 도서 선택력의 배양 6. 집단속에서의 사고 심화
	독서를 위한 기초능력	(1) 독해력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5px;">독자력 어휘력 문법</div> <div style="margin: 0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5px;">문장 이해력</div> </div>	(2) 독서기술 1. 도서의 구성, 취급 방법, 목차, 머리말, 후기, 검색, 판권 등을 이해, 발췌, 요약, 인용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또한 사서교유와 국어교사에 의한 독서지도의 분화를 주장하고 사서교유의 역할을 전체적·기획적 원칙, 자료 다양성의 원칙, 정보지도의 원칙, 강화성의 원칙 등, 4개의 원칙에 의한 지도를 추구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이용자 지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滑川道夫編, 學校の讀書指導(東京: 國土社, 1978), pp.180-254.

- 6) 교육심리를 전공한 사카모토는 어린이는 성장에 따라 독서에 대해 흥미가 변한다고 보고 이에 맞춘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화를 전래동화, 우화기, 동화기, 설화기, 위인전기, 문학기, 사색기 7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안내에서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를 위한 치료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메카와와 함께 일본의 독서교육의 선구자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滑川道夫, 坂本一郎, 讀書相談(東京: 牧書店, 1952), pp.47-141. ; 塩見昇 外, 學校図書館メディア讀書教育(東京: 教育史料出版者, 2007), p.148.
- 7)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必讀圖書委員會編, 何をどう讀ませるか(東京: 全國SLA, 2000), p.4.

이처럼 관련 학자들과 유관 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논점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는 독서교육의 목표를 피교육자로 하여금 독서를 위한 기초 능력인 '독해력'과 '독서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독서를 촉진시키기 위한 올바른 '독서력'과 '독서태도'를 갖추게 하며,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구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게 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교육을 통한 인간성 형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1945년의 종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립된 일본의 기본 교육이념, 즉, '인간 존중 그리고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일맥상 통한다.⁸⁾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교육이념 하에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교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일본의 교육이념으로 짙게 자리 잡아 왔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독서교육의 목표는 반세기 가 넘도록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독서교육의 목표가 '교양적 지식의 습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가 급속히 정보화되면서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습득의 방법 혹은 도구로서의 독서의 의미를 독서교육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본 학생들의 PISA 독해력 성적의 지속적인 하향이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양적 지식'을 위한 독서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⁹⁾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교양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독서교육과는 달리 문제해결 능력의 구비를 목표로 하는 독서교육은(현재 일본의 독서교육자들의 현황을 고려할 때) 교과와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유지되기보다 교육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좌우되기 쉽고, 이렇게 시행된 독서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독서교육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주춤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서교육의 목표에 '학습능력의 향상'을 추가해 놓은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조차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담당 교사들이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여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주장은 있지만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목표와 새로운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일본의 교육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8) 교육기본법의 제 1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며,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고 자주적 정신을 갖춘 심신과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기본으로 한다.

9) 黒古一夫, 山本順一編, 読書と豊かな人間性(東京 : 學問社, 2007), p.41. ; 有元秀文, PISAに對應できる「國際的な讀解力」を育てる新しい讀書教育の方法(東京 : 少年寫眞新聞社, 2009), pp.13-50.

나. 독서교육 정책과 지향점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자 교육당국이 중심이 되어 제정에 앞장섰고 현재까지도 독서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2001년의 『어린이독서활동촉진에 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만18세, 즉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제반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약 5년을 주기로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독서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이 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관련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도록 권장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하게 독서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서활동 환경'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항에 전문적인 독서환경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결여하고 있어 지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에서 독서활성화를 위해 정비되어야 할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는 '환경'은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일본 정부는 2002년에 세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 환경인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정비를 통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¹¹⁾ 그러나 독서활동을 돕는 환경을 너무 보편적 일상 공간에 국한해 놓은 나머지 학교와 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학교도서관과 같은 직접적인 독서 환경의 정비나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언급은 결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²⁾

더욱이, 이러한 기본법의 한계는 지역의 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독서활동촉진계획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게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애초의 법 제정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가 수립해 놓은 기본 계획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독서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10) 동 법의 제8조(어린이독서활동촉진기본계획)는 정부가 어린이의 독서활동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촉진을 위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의 촉진에 관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9조(도도부현어린이독서촉진계획등)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어린이 독서활동촉진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어린이 독서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촉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2006년에는 전국의 지방단체들이 1차 어린이독서활동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2차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文部科學省, 都道府縣及び市町村における『子ども読書活動推進計画』の策定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 2009, [cited 2010. 1. 30].

1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가 독서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쓴다. 둘째,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 관련 환경이 연대하여 어린이의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돕는다. 셋째, 어린이의 독서활동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힘쓴다.

12) 단지 동 법 7조에서 『학교, 도서관 그 외의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의 강화』라는 문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효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¹³⁾

2.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정책

도서관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과 인력을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한 학교 행정의 의무적 지원을 담보해 내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 발전 정책이 실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독서교육의 주체로써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부터는 일본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을 참조하면서,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학교도서관 인력의 운용

관련 통계를 통해 조사해 보면, 일본의 司書教諭¹⁴⁾의 배치율은 2009년 현재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¹⁵⁾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서교유의 배치율은 초등학교 61.2%, 중학교 58.9%, 고등학교 82.4%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2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서는 99.3%, 중학교 98.2%, 고등학교 95.2%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양호한 배치율은 199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법』에서 2003년도까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유(教諭)의 배치를 의무화해 놓은 결과이다.¹⁶⁾

-
- 13) 각 지방의 어린이독서활동촉진계획은 다소의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독서활동촉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과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았다.
 - 14) 사서교유는 일본에서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에 대한 호칭이다. 처음에는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를 '교인사서'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양호교유(養護)와 같이 전문직을 겸비한 교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사서교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는 '사서교유'로 불리고 있다. 塩見昇, 學校図書館職員論(東京 : 教育史料出版會, 2002), pp.42-71.
사서교유 :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직무를 담당한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학교도서관법에 기초하여 학교도서관사서교유강습규정에서 인정하는 도서관 관련과목 10단위(1999년 3월까지 8단위)를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図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編, 図書館情報ハンドブック第2版(東京 : 丸善社, 1999), p.137.
 - 15) 일본의 학교도서관의 설치비율은 100%이며 문부성이 제시한 학교도서관장서기준달성학교수(고등학교기준無)는 초등학교 45.2%, 중학교 39.4%이다. 文部科學省, 平成20年度『學校図書館の現状に關する調査』の結果について, 2009, [cited 2010. 2. 1].
 - 16)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유 배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설치의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서교유)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서교유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2(사서교유의 배치특례) 학교에는 2003년 3월 31일까지(정령에서 인정한 규모이하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 5조 1항의 규정에 관계 하지 않고 사서교유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도서관법부칙 제2항의 학교의 규모를 정하는 정령(1997년 정령 제 189호) 학교도서관법부칙제2항의 정령에서 인정하는 규모이하의 학교는 학급의 수가 11이하의 학교로 한다. 그러나 현재 11학급 규모의 학교가 전국의 48%에 해당하며 이러한 규모의 학교에 대한 사서교유의 발령유무를 지방자치체에 일임하고 있다. 즉, 50%에 가까운 학교에 사서교유의 발령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법의 개정에 의해 학교도서관의 담당자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은 사실이며, 현재 사서교유의 배치는 12학급 이상의 경우 97.9%(2009년 문부과

그러나 일본의 사서교유 제도와 한국의 사서교사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전임 사서교사의 배치율이 90%에 이른다고 판단한다면 잘못이다.¹⁷⁾ 일본의 사서교유는 특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평교원이 사서교유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의 전공 교과를 담당하면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사서교유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대학과 기타교육기관에 의해 운영되며,¹⁸⁾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5개 강좌로 모두 1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 2>의 내용에서 확인할 있듯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의 내용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지식보다는 독서교육 담당자로서의 철학과 자세를 강조하는 이론적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독서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에게 필수적인 ‘독서자료선택론’이나 ‘독서방법론’에 대한 강좌는 결여되어 있어, 과연 이 과정을 이수하고 독서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표 2> 사서교유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목

과목명	학점수
학교경영과 학교도서관	2
학교도서관미디어구성	2
학습지도와 학교도서관	2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	2
정보미디어의 활용	2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은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숙지만으로 교육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다양한 독서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는 독자(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고도의 실천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사서교유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독서교육 관련 교과목은 단 한 과목(독서와 풍부한 인간성)에 불과하며, 교과목의 내용 또한 독서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은 결여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일본의 사서교유 제도는 학교도서관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사서로서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독서교육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교사로서의 이론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게 하기에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도서관 현장에 사서교유가

학생 조사) 발령이 완료된 상태이다.

- 17) 이 연구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담당자를 사서교사로 번역하지 않고 사서교유와 학교사서로 분리해서 본연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사서교사와의 차이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이다.
- 18) 2009년 현재 교육기관은 전국 48개 대학과 4개의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年鑑編集, 日本図書館年鑑(東京 : 日本図書館協會, 2008), pp.759-761.
- 19) 현재 5개 출판사(學問社, 青己社, 樹村房, 放送大學教材, 全國SLA)에서 총 6종의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 과목의 텍스트를 출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6종 모두가 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을 위한 실무적 지식보다는 독서의 의의와 효과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서관 업무는 사서교유의 보조 인력으로 학교사서를 별도로 채용하여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서교유 제도는 그 자체로서 교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맞추어 여러 명의 사서교유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히, 학년별 혹은 과목별로 사서교유의 배치가 가능하여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밀착형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사서교유가 있더라도 학교사서를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도서관 실무는 학교사서가, 도서관을 이용한 교육은 사서교유가 전담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서교유 양성 제도가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밀착형 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공급하는데 적합하게 교과과정을 보강할 수 있다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효과를 증진하는데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의 교육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아침독서'일 것이다. 2010년 현재, 전국의 70%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서 아침독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관련한 보고서만도 수십 편에 달할 정도이다.²¹⁾ 그러나 아침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언급한 연구나 보고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침독서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 혹은 학교사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아침독서 프로그램의 사례는 이처럼 현재 일본의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사서교유의 거의 대부분이 교과수업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사서교유가 단독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리일는지 모른다. 이러한 실정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기에 교육 현장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과별 교육지도요령을 통해 교과별로 담당 교사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며, 특히 국어과와 사회과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교양 및 학습독서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교과들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독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다음 이야기를

20) 이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8개 고등학교에 사서교유와 함께 학교사서가 배치되어있으며 그들이 도서관의 실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 전국고등학교의 71.1%에 학교사서가 배치되어있다. 文部科學省, 전계서.

21) 朝讀書推進協會, <<http://www1.e-hon.ne.jp>> [cited 2010. 2. 21].

참조해 보자.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지도요령에 언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활용을 해본 적이 없으니 졸업 후 학교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수업에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서교유와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 T대학 교육대학원생(사회교육과)

“제 과목에서 하고 있는 고전읽기를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독서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부끄럽게도 제가 사서교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B학교도서관 사서교유(국어교과담당)

위의 인용문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물론이고 사서교유로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조차 자신의 교과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법조차 모르고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어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시설은 갖추어 놓았지만 그 시설의 참 의미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식하는데 실패한 관련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 즉, 독서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관료의 머리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며,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의 머리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데서 야기되는 결과 인 것이다. 심지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교유의 지식 체계에서조차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은 따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인식에서부터 실무자의 지식 체계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Ⅲ. 학생들의 독서행태와 학교도서관의 활용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주체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그들의 요구와 행태를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피교육자의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에 다시 접근해 보고자,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대한 조사에 더해 학교도서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1. 독서행태에서 나타난 보편적 특징

학생들의 독서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들은 독서의 목적과 의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어 독서활동의 빈도와 독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72.7%가 응답할 정도로 일본학생들의 대부분은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 '학습을 위해서'(9.8%), '정보 수집을 위해서'(7.0%), 혹은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서'(5.0%) 독서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책을 접하기 보다는 여가나 휴식의 연장에서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책을 찾는 모습이 일본 학생들에게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서를 하는 목적

독서목적		
항 목	빈도	%
① 즐거움을 위해	290	72.7
② 학습을 위해	39	9.8
③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	20	5.0
④ 정보 수집을 위해	28	7.0
⑤ 기타	15	3.8
무응답	7	1.7
합 계	399	100

이러한 경향은 책이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갖는 비중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의 약 10.6%만이 책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일상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책의 비중이 이처럼 낮다고 해서, 그들이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 일상적 문제해결에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약 66%에 이르는 학생들은 독서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신뢰를 표출하였다. 가령, 다음의 〈표 4〉는 일본 학생들이 독서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듯이, 독서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성적과 진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독서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71.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이렇듯 높은 신뢰도에 불구하고, 생활에서 관심사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독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지 19.2%에 불과하여, 그들의 생각

과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에게서는 독서가 정보를 얻는데 유용한 활동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전개하지는 않는 모순된 행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표 4〉 문제 유형별 독서 신뢰도와 실제 독서활동의 비율(단위 = %)

		성적&진로 (n=156)	교우관계 (n=98)	이성관계 (n=29)	가족관계 (n=2)	서클관계 (n=47)	그 외 (n=54)
신뢰도	매우 높음	18.6	10.2	29.9	0	12.7	16.7
	높음	53.2	51.2	34.5	100	46.8	40.7
	합계	71.8	61.4	64.4	100	59.5	57.4
이용도		19.2	13.3	13.8	0	8.5	1.9

학생들의 독서활동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된 소극적 행태는 독서빈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즉, 조사 대상 학생 중에서 약 30.6%가 “1달 평균 1권 정도로 책을 읽는다”고 응답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1.6%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독서활동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소극성에 대해 일선의 교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 보였다.²²⁾ 면담에 응했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독서활동의 소극성이 근자에 들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독서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독서활동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독서를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면담에 응했던 교사들과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독서 관련 정책과 실천 전략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보다 직접적이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 관련 분야의 학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원인은 학생들의 독서욕구를 실질적인 독서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독서교육의 부재와 관련 정책의 부실이었다. 그들은 교양독서를 강조해 온 일본의 편향된 독서정책과 독서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침체하게 만든 핵심 원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도 그들의 그러한 진단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독서교육 정책과 사서교육의 독서교육 방법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임을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이번 연구에서 관찰조

22) 일본의 학교도서관협의회가 2009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5월 기준으로 한 달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고등학생의 비율은 약 47%에 이르러 독서활동의 소극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學校図書館協議會研究・調査部, “第55回學校讀書調査報告,” 學校図書館, Vol.709(November 2009), pp.13-17.

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T학교에서는 사서교유가 다양한 과목의 수업지원을 통해 오락적 수단으로
 뿐 아니라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책과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육이 갖는 성과는 학생들의 자료이용행태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의
 면담 내용은 사서교유의 교육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²³⁾

“처음에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만 보고 찾았는데요 ... 그런데 학교도서관선생님이 참고도서
 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이후부터는 인터넷과 책을 모두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어요” -
 T학교 학생(학교도서관활용수업 참여자)

“도서관은 주로 소설책을 빌리기 위해 오곤 했는데, 교육을 받은 후부터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참고자료를 이용하려고 오게 되요. 예제는 이번에 가게 되는 수학여행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친구들과 함께 와서 관련된 책을 찾아봤어요.” - T학교 학생(도서관이용자)

그렇다면 사서교유의 교육을 받기 전에 학생들은 독서자료를 선택할 때 주로 무엇을 참고하였을
 까? 다음의 <표 5>는 학생들이 독서자료를 선택하고자 할 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참고 대상은 대중매체(38.4%)와
 친구(32.9%)였다. 이에 비해, 선생님(2.2%)이나 학교도서관(1.9%)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
 았다. 이렇듯 선생님이나 학교도서관의 미미한 역할은, 앞서 논의한 소극적인 독서활동에 더해, 지금
 까지 일본이 시행해온 독서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정책이 학생들의 독서행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준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근자에 시행되어 온 일본의 독서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정책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해온
 집단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표 5> 독서자료 선택 시 참고 대상(n=268, 단위=%)

2순위	1순위						
	친구	가족	선생님	학교도서관	대중매체	기타	합계
친구	0	1.1	0.4	1.1	26.5	6.7	35.8
가족	3.0	0	0.4	0	3.7	3.0	10.1
선생님	3.7	0.4	0	0.4	1.5	0.4	6.4
학교도서관	3.0	0.7	1.1	0.0	2.6	0.4	7.8
대중매체	21.3	1.9	0.4	0.4	0.0	9.3	33.2
기타	1.9	0	0.0	0.0	4.1	0.7	6.7
합계	32.9	4.1	2.2	1.9	38.4	20.5	100

23) T학교는 전임사서교유를 배치하고 각 교과별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 돕고 있었다. 이러한 독서교육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은 책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지하는 동시에 활용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2.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이번에는 일본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목적에서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나아가, 학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해, 관찰과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의 이용 행태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있는 ‘무관심’이었다. 도서관의 이용빈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1.7%나 되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약 27.8%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소수지만 학교도서관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이용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이용 학생들의 절반이 책의 대출이나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책’에서 찾고 있는 학생들이 60.6%에 이르러,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책의 이용’을 학교도서관이 갖는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도 24.7%에 이르러 앞서 논의한 독서행태에서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막상 독서지도 혹은 상담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학생은 0.6%에 불과하여,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변하였다(표 6 참조).

〈표 6〉 학교도서관의 이용 목적

도서관에 가는 이유		
항목	빈도	%
① 자료 대출 및 독서	89	50.0
② 수업	19	10.7
③ 자료 검색	9	5.1
④ 독서지도 및 상담	1	0.6
⑤ 즐거움과 휴식	44	24.7
⑥ 기타	16	9.0
합계	178	100

학교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한 이러한 행태적 특징은 관찰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가령,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80% 이상은 친구들과 잡담을 하거나 만화책 혹은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특히, 독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사 기간 중에 그러한 시간을 활용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65.4%가 “학교도서관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는 현실에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투리 시간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가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이렇듯 불안정한 위상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50.7%가 학교도서관을 통한 어떤 형태의 독서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약 33%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은 관계가 없다” 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연상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용자에게 책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일본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조사 결과, 42.9%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핵심 업무를 자료의 정리와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독서지도와 상담이 핵심 업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8%에 불과하였다. 특히,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16.8%에 달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더라도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는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약 60%에 이르고, “독서에 대해 지도를 요청하거나 상담한다”는 응답자가 단 4.8%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표 7 참조).

〈표 7〉 학교도서관 담당자에 대한 인식과 활용

담당자의 핵심 업무			담당자에게 자주하는 질문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① 자료정리와 대출	171	42.9	① 자료의 배치	57	14.3
② 수업실시와 지원	24	6.0	② 자료의 검색	67	16.8
③ 자료검색의 지원과 지도	49	12.3	③ 독서지도와 상담	19	4.8
④ 독서지도와 상담	55	13.8	④ 기타	5	1.2
⑤ 기타	9	2.2	⑤ 질문을 하지 않음	219	54.9
⑥ 잘 모름	67	16.8	무응답	32	8.0
무응답	24	6.0			
합계	399	100	합계	399	100

한편,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다른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자료의 정리와 대출’을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주요 업무라고 응답하였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8개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유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료의 정리와 대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사서교유가 아닌 학교사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학교도서관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교사서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서교유와 학교사서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유의 활동량이 학교사서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었다. 독서교육과 수업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는 사서교유는 전담 과목을 가진 평교사이므로 사서교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과의 접촉이 실질적으로 적은 만큼 그들의 핵심 업무인 독서교육이 학생들에게 인지되기에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면담과정에서 만났던 사서교유들은 이러한 속사정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지금 있는 학교는 1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사서교유는 저 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 대해 잘 몰라요. 담당하고 있는 수업도 너무 많고 또 다른 업무를 하나 더 맡게 되어서요, 학생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학교는 학교사서가 있으니 학교도서관의 운영은 그럭저럭 되고 있어요.” - K학교의 사서교유

“작년까지 거의 학교도서관에 가지 못했어요. 담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겨우 담임은 맡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업이 꽤 많아서 학교도서관 지원 수업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 B학교의 사서교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교도서관에 자리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는 사서교유가 독서교육과 타 교과의 수업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처음 조사 대상으로 선택했던 8개 학교 중에서 단 2곳만이 사서교유가 담당하는 수업시간을 통해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4개 학교는 추천도서목록과 관련 인쇄자료의 제작 혹은 게시판의 활용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²⁴⁾ 사서교유에 의한 직접적인 독서교육 자체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찌 사서교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평가를 내릴

24) C와 D고교의 경우 사서교유가 국어 수업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나름의 결과가 있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30% 가까운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서교유가 실시한 독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독서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받았을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먼저 ‘독서교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즉, 담당자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독서교육을 행하고 학생들도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를 ‘직접적인 독서교육’으로, 목록이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교육이 행해져서 학생들도 스스로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를 ‘간접적인 독서교육’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학생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독서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교육과 교육내용에 대해 훨씬 강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는 점이었다. 가령, 독서교육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82.7%가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물론 직접적인 독서교육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갖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독서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고 교육의 긍정적 효과 또한 크다는 점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지도(36.9%) 혹은 수업을 통한 단체지도(29.3%)와 같은 직접적인 독서교육 방법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표 8 참조).

이어, 독서교육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즉, 교육 담당자가 학생들의 상태와 책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행해지는 교육을 ‘심층적인 독서교육’으로, 반면에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표층적인 교육’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질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64.4%가 심층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내용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는 표층적인 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한 28.8%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으로는 ‘적합한 독서자료의 추천’이 52.8%로 압도적이었으며, 뒤를 이어 ‘자료를 찾는 방법’(18.3%), ‘자료의 내용 분석 방법’(17.8%), ‘구체적인 독서방법’(9.4%)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표층적인 독서교육보다는 심층적인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8〉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바라는 독서교육

독서교육의 방법적 부분			독서교육의 내용적 부분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① 단체수업	46	29.3	① 자료를 찾는 방법	33	18.3
② 개인지도	58	36.9	② 독서자료의 추천	95	52.8
③ 게시판 및 프린트	25	15.9	③ 자료의 내용 분석	32	17.8
④ 독서관련행사	22	14.0	④ 구체적인 독서방법	17	9.4
⑤ 기타	6	3.9	⑤ 기타	3	1.7
합계	157	100	합계	180	100

IV.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도서관의 과제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를 부연하자면, 일본 독서교육의 현장에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의 역할과 기능은 정책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미미하였다. 이에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해 줄만한 정책적 지원의 미흡과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려는 일선 학교의 노력 부족이 무엇보다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보니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의 전문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자연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부족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인력의 전문성 배양에 있어 기본이 되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양성프로그램은 질과 양 모두에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었다.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독서교육의 주체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려는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상황과 독서욕구에 적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렇다고 해서 특정 교과를 전담하면서 사서교유의 업무를 부업처럼 해야 하는 그들에게 남다른 헌신을 무작정 강요하기도 힘들어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지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1. 학교도서관 정책의 전면적 보완

앞서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일본의 독서교육 정책에서 학교도서관의 위상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본에서 <학교도서관법>이 단독 법안으로 제정된 지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전국에 걸쳐 61개의 산하 단체를 거느린 거대 조직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어 운영 된지도 만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담당자의 배치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같은 협력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설과 인력 배치 면에서 학교도서관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법>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도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다보니 독서교육과 같이 학교도서관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끌

어가야 하는 핵심 영역에서도 막상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유는 주변에 놓이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항용 그렇듯이, 외형적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내실 있는 발전이다. 그리고 조직의 내실은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열의에 의해 다져진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정책의 우선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책무 수행의 열의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업무 환경의 조성여 주어져야 한다. 사서교유가 되었던 학교사서가 되었던 학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에 운영을 맡기고 그 전문가가 자신의 책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사서교유와 학교사서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 업무의 경계 또한 모호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또한 부실하다면, 외형적 성장이 내용적 결실로 이어지기는 요원하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 운용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전진적인 자세와 노력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자료관리 업무와 독서교육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자격 조건을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현재와 같이 사서교유와 학교사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실질적인 도서관 업무의 대부분은 학교사서가 하면서도 학교도서관 업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사서교유가 도서관의 책임자로 기능하는 모습은 부자연스럽고 비효과적이다. 특히, 도서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서교유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일본의 도서관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유의 전임화와 학교사서의 전면 배치라는 방안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의 방안을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계 사람들은 현재의 사서교유 양성 과정이 독서교육은 차치하고 도서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실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사서교유가 전임이 되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독서교육을 전담할 경우 과연 그 책무를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²⁵⁾ 그러나 비록 전문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사서교유가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서교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사서가 사서교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사서교유나 학교사서나를 놓고 논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25) 그들은 5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사서교유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양성하는 기관과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현행 독서교육의 방법과 내용적 혁신

앞서 논의하였듯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와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각에 기초하여 들여다 본 현행 학교도서관 주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대대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해 보였는데,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학생들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장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과제는 ‘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냐 하는 독서교육의 목표에 대한 공감과 이해이다. 일본이 추구해온 독서교육의 목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성 형성이라는 조금은 전근대적 성향에 귀착되어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습득 과정으로서의 독서가 갖는 의미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 그로 인한 편중된 독서경향이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폭넓게 퍼져있음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독서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면담을 통해 그러한 욕구가 실제로는 보다 많은 학생들 사이에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서교육이 교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단선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이상 피교육자의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갖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²⁶⁾ 특히, 독서교육의 담당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절실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파악한 학교도서관에서의 교육은 ‘자료검색 방법의 안내’와 같은 단순 응답형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단순 응답형 보다 독서자료의 추천과 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같은 심층적인 독서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독서교육이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좌이자 독서교육 담당자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교육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단체수업이나 개인지도 혹은 독서관련행사 등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인 교육방법의 확산이 수요자의 요구이지만, 사서교유가 처해 있는 업무 여건은 이의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서교유의 전일화가 당위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제안은 비록 간접적인 독서교육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사서교유는 독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26)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균형잡기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서관 자체를 기능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다. 즉 학교도서관을 문학과 같은 읽을거리를 중심으로 배치한 ‘독서의 방’,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자료를 배치한 ‘검색의 방’으로 나누고 도서관을 완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상시 평가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는 독서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독서량과 독서빈도를 측정하는 등 양적 평가 방법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의 성과는 양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환경과 처지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야도 아니다. 독서교육의 평가는 특정 대상(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며, 따라서 자신이 실행한 독서교육의 성과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바라다면 피교육자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근거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가령,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만났던 C학교의 학교사서처럼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하는 질문과 대화를 일일이 기록하고, 그러한 자료를 향후 교육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모든 과제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즉,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육의 전문성 부족과 교과 수업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서 모든 미시적 문제가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현 단계 일본의 독서교육 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의 비합리성이 낳은 제도적 결함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관련 정책의 혁신과 담당자의 노력이 동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성과를 거두기란 영원히 불가능한 시도일는지 모른다. 학교도서관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독서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정책 입안자의 의식 변화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헌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V. 결 론

일본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교육계와 도서관계, 보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일본의 학교도서관이 물리적으로나 운영 인력의 면에서 한국의 학교도서관에 비해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이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건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00%의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99%의 전담 인력 배치율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학교도서관과 전담 인력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들의 발전 과정을 금과옥조의 모델로 삼으려 한다면 그 결과의 참

27) 가령, 독서자료의 선택에 있어 친구와 베스트셀러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구들에 의한 추천도서 코너를 꾸미거나 교내 베스트셀러코너를 만드는 등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사서교육이 코너별로 추천의 글을 직접 기재하는 것도 직접적인 교육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의 갈증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담함은 명약관화하다.

현단계 일본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학교도서관의 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교육적 공감대를 확산하지 못하고 전담 인력의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이끌어낸 정책과 제도의 무의미함과 역기능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내실이 결여된 외형적 모습 갖추기는 학교도서관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게 만들고 교육적 기능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정보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능력과 정보 능력을 갖춘 사서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사서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건실한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의 확보가 도서관의 물리적 확장과 관리 인력의 어설플 배치에 앞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0년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해 점차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회나 강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규모가 증가일로에 있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찾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2009년 겨울 학교도서관 실천방안 관련 강연회에서 만났던 한 사서교유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학교도서관 정책과 실무를 관장하는 일본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우리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인용한다.

“일본 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을 전문 인력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참으로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 지금 일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장해 왔던 그러한 전문 집단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학교도서관을 책임 질 이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학교도서관이 진정한 교육기관이 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 N학교 사서교유.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